

# 저비용항공 운항 확대에 무안공항 활기

### 지난해 국제선 여객 2배 증가 광주공항 이용객 2.1% 늘어 저비용항공 분담 29%로 성장

지난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공항의 경우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여행객 증가로 이어졌고 무안공항은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 및 노선 다양화가 한몫을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공항 이용객은 97만9874명으로 전년도

(95만9386명)에 견줘 2.1% 늘어났다. 광주-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9.8% (5506 → 6045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광주공항 이용객은 79만2471명(2016년)→95만9386명(2017년)→97만9874명(2018년)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 여행객도 증가했다. 다만, 김해(979만9명), 대구(203만3825명), 김포(427만350명)에 비하면 길은 여전히 멀다.

무안공항을 찾은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32만4528명으로 전년(15만6379명)보다 107.5%가 증가했다.

국제선 여객 증가율로만 보면 양양(137.9%)을 제외하고 제주(48.6%)·대구(36.6%)·김해(12.1%)·인천(10.1%)·청주(7.1%) 보다도 높았다.

저비용항공사의 노선 다변화가 국제선 여객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특히 제주항공을 이용한 여행객이 16만6700여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절반이 넘는 51.4%에 달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만 무안을 기점으로 하는 오사카·다낭·방콕·타이베이·세부, 코타키나발루 등 6개 노선을 취항한 데 이어 올해도 3월 도쿄, 블라디보스톡, 마카오 등 3개 노선에 추가로 취항, 국제선을 9개

로 늘린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제선 이용 여객은 8593만명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한 반면, 국내선 여객은 3160만명으로 2.5% 감소했다. 항공사별로는 전체 국제선 여객 중 39.3%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가, 29.2%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나머지 31.5%는 외국 항공사가 수송했다.

LCC 분담률은 11.5%(2014년)→14.6%(2015년)→19.6%(2016년)→26.4%(2017년)→29.2%(2018년) 등으로 성장세가 뚜렷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7.30 (-0.43)	↑ 금리 (국고채 3년)	1.82 (+0.01)
↑ 코스닥	714.26 (+2.88)	↓ 환율 (USD)	1117.70 (-3.60)



## 광주은행 모바일 뱅킹 서비스 소개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24일부터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판매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 지난해 2월부터 판매중인 광주은행 모바일 신용대출은 소득자료 전자방식 제출(스크래핑)을 통한 직업 및 소득정보 자동처리 등으로 최적의 한도 및 금리를 산출하는 최신 시스템이 적용돼 있으며, 최고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고객이 직접 7분 안에 모바일로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5600억원을 판매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기존 모바일 신용대출에 댄스대출을 추가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쉽고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뱅킹(포털에서 광주은행 검색 후 접속)과 스마트뱅킹(APP)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최고 대출가능한도는 5000만원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신규 개설과 댄스대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광주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 백성 부장은 "모든 은행업무와 상품·서비스를 디지털화해 고객에게 쉽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광주은행은 앞으로 고객의 공간에서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JBL·AKG·하만카돈

### 무선 오디오 기기

###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JBL, AKG, 하만카돈의 신제품 라인업을 새롭게 출시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언더아머'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JBL 언더아머 플래시'는 블루투스 기반의 완전 무선 이어폰으로, 인체 공학적 설계를 통해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 여행 중에도 잘 빠지지 않도록 설계했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통해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음악 감상 중에 이어폰을 빼지 않아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IPX7' (1m 수심에서 최대 30분간 물이 새지 않는 등급) 단계의 방수 성능을 갖췄으며, 휴대용 충전 케이스와 함께 사용 시 최대 25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했다.

또 'JBL 인듀어런스 피크'는 착용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귀에서 빠지면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AKG 무선헤드폰 신제품은 가죽 쿠션을 적용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하고 비행기나 지하철 등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도 고음질 사운드 감상이 가능하게 했다.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인 '하만카돈 오닉스 스튜디오 5'는 한번 충전으로 8시간까지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어 거실과 테라스, 야외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조합장 공명선거 실천 협약.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25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한국농업경영인(이하 한농인) 전남연합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농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 설 연휴 중소기업 정책자금 12조7200억원 공급

### 금리 인하 등 혜택도 확대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설 특별자금으로 9조 3500억원을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필요한 자금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 만기연장은 2조7000억원, 신규 보증은 6700억원이다.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와 보증비용도 우대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으로 전도시장 상인회에 명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당 2억원을 공급하며 점포는 1000만원, 무등록 점포는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4.5% 이내이며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갚으면 된다.

연휴 기간 대출 만기연장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2월 1일에 조기 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연휴 후인 2월 7일에 상환해도 연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은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2월 1일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내달 1일 오후 4시부터 2월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계좌 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단 WU빠른해외송금과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중기 지원사업 설명회'

### 내일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소장 정진삼)는 전남동부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전남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에서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창업부의 '올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TP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소개한다.

이밖에 창업, 기술개발, 경영으로, 자금 등에 대해 개별상담 창구를 운영해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궁금증을 해소하

는 자리도 마련한다.

정진삼 소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정부지원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동부사무소는 30일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간접결제(제로페이) 안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설명회를 오는 2월 12일 광양시와 13일 순천시에서 진행한다. 또 추가 설명회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단체는 전화(061-727-5714)로 신청하면 현장을 방문해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